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적용한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 예측요인 탐색

임양미*¹⁾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Exploring predictors of subsequent childbirth plan for non-employed and employed mothers : The application of decision tree analysis

Lim, Yang-Mi*¹⁾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mothers' variables and present children's variables on subsequent childbirth plan and to explore predictors of subsequent childbirth plan for non-employed and employed mothers. The subjects were 1,635 mothers participating in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from 2008 to 2010 and having no subsequent children until 2010 after giving birth to children in 2008.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 χ^2 test, and decision tree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mothers' child-rearing stresses, child value,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present children's birth order and sex influenced mothers' subsequent childbirth plans, whereas mothers' average family income per month did not. Secondly, in the case of non-employed mothers, their present children's birth order and sex, and mothers' child value predicted their subsequent childbirth plan. Specifically, mothers whose present children's birth order and sex was first and female had the highest possibilities of subsequent childbirth plan, followed by mothers whose present children's birth order and sex was first and male, and child value was higher. Thirdly, in the case of employed mothers, their present children's birth order an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predicted their subsequent childbirth plan. Specifically, mothers whose present children's birth order was first and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had the highest possibilities of subsequent childbirth plan. Finally, the study suggested the ro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raising the rate of subsequent childbirth.

Key words: 후속출산계획(subsequent childbirth plan), 비취업모(non-employed mother), 취업모(employed mother),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 어머니 속성(mother's variables), 자녀 속성(child's variables)

1) 교신저자: Lim, Yang-Mi,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Jeonju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63-220-2338, Fax: 063-220-2053, E-mail: ym68@jj.ac.kr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Statistics Korea, 2014), 평균 1.2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저출산은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의 존속에 위협을 가하며 연령별 인구 비율의 불균형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현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저출산을 다룬 연구들은 출산율의 국가 간 비교나 출산율 추이를 분석한 경우(Chung & Chin, 2008)와 출산에 대한 지표로 자녀수, 후속출산계획 또는 희망자녀수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Kim, Yang, & Sung, 2013; Lee & Choi, 2012; Lim, Lee, & Choi, 2011)로 나누어진다. 특히 현(現)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이 2.1명(as cited in Lee, 2012)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둘째이상의 자녀출산의도로 정의되는 후속출산계획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주요한 지표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이 후속출산계획에 초점을 두어 이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후속출산은 첫째 자녀 출산과 다르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제시된 후속출산과 관련된 요인은 인구학·경제학·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개인의 출산행위는 연령 및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등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ramer, 1987). 예를 들어,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후속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hin, 2013; Lim, 2013).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 의하면 개인은 자녀가 주는 효용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자녀 출산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즉, 개인은 자녀양육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자녀의 노동으로부터 얻는 이익, 노후의 생활보장책으로 자녀에 대한 인식 등 자녀출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출산을 결정하게 된다(Leibenstein, 1975). 이러한 주장은 몇몇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가구소득 및 기존자녀의 양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후속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제시됨으로써 입증되었다(Chung & Chin, 2008; Lee & Min, 2015).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구학적·경제학적 관점을 토대로 기혼 취업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왔다(Shin, 2013). 그러나 2012년부터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산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적 성과는 아직 미비하다. 이러한 사실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학적·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규명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중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관,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이 많은 연구를 통해 다루어져 왔다. 이 중 기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었으며(Lim et al., 2011; Lim, Park, Jahng, & Lee, 2015),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후속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다(Cha, 2008; Lee, 2009). 한편 부부 관계와 사회적 지원 또한 자녀양육에 필요한 도구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Kang, 2007; Ko & Kim, 2014; Lee, 2012).

또한 어머니의 특성 외, 현 자녀의 성별과 출생순위 또한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국가로, 현 자녀의 성별이 여아일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Jung, Kim, & Jung, 2013), 자녀가 첫째일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Lim, 2013).

한편 이상에서 언급한 후속출산계획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제한점을 보인다. 우선 몇몇 변인들의 경우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Wang과 Lee(201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둘째 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Lim 등(201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후속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Shin, 2013)가 있는 반면 전업주부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Park, 2008). 따라서 대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후속출산계획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후속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한 대부분의 연구들(Cha, 2008; Chung & Chin, 2008; Jung & Choi, 2013; Lim et al., 2011; Song, Lee, & Kim, 2011)은 어머니의 인구·경제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자녀 요인 중 몇몇 요인을 선택해 각 요인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계획은 특정 단일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Kang, 2007). 예를 들어, 몇몇 연구자들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부부의 결혼만족도 및 사회적 지원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점(Lim et al., 2011; Park, 2012)이 제시됨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규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출산지원정책은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위주로 진행된 탓에 비교적 초기에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취업모에 초점을 두어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경험하는 상황이 달라지므로,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변인들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과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비취업모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측면과 자녀의 성별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Kim & Yoo, 2010; Park, 2008),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양육과 일에 대한 부담감,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등이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이 제시되었다(Lee & Choi, 2012; Lim & Lee, 201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비취업모와 취업모로 나누어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단편적인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취업여부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호 복합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에서 제기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전국규모로 실시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월평균 소득수준,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및 관계적 특성(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자녀 특성(성별, 출생순위)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변인들이 후속출산계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을 예측하는 요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후속출산을 다룬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후속출산계획 및 이행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규명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최근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 복합적인 영향 및 경로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적용하여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함께 판별 분석의 유형에 속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다양한 변인 간 존재하는 수많은 상호작용을 한 번에 탐색해내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비모수 통계기법에 가까운 엄격한 통계적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투입된 변인이 범주 및 연속척도인 경우 모두 사용가능하며 변인 간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상호작용의 조합관계를 자동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장점(Lee, Jung, & Kim, 2012)이 있다. 따라서 최근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자살 및 인터넷 중독의 예측요인을 탐색한 연구들(e.g. Kweon & Kim, 2014)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토대로 선정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 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개인적·관계적 특성, 자녀의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 2)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을 예측하는 요인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관련문헌 고찰

1. 어머니의 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1) 개인적 특성

어머니의 인구학적·경제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은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어머니의 인구학적·경제적 특성 중 선행연구를 통해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요인은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소득수준 등이다. 이 중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후속출산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는데(Cha, 2008; Jung & Choi, 2013; Lim, 2013), 그 이유는 여성의 연령수준은 가임기간과 관련되기 때문이다(Cha, 2008).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소득수준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Wang과 Lee(201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가계소득이 높고,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둘째자녀를 갖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Lim 등(2015)의 연구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Wang과 Lee(2012)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한편 몇몇 연구들을 통해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등의 인구학적·경제적 요인은 다른 요인과 더불어 출산계획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우선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존자녀의 양육비용이 증대하므로 후속출산을 기피하며(Lee & Min, 2015; Lim, 2013),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Brewest & Rindfuss, 2000), 여성의 성취의식 수준이 높아지므로(Kong, 2006), 후속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학력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제시된 연구도 있다. Park과 Kim(2008)의 연구에서는 첫째 자녀를 출산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있어 차이가 나지 않았던 반면 후속 출산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

집단에 비해 대학교 학력집단에서 높은 출산실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ee와 Choi의 연구(2014)에 의하면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 직종에 따라 후속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는데,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의 경우 전문직과 관리직에 비해 둘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전문직과 관리직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하고, 직무특성상 육아휴직 등의 공적인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와 사적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며 근무시간의 비탄력성 등으로 출산이행이 어렵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Lee & Choi, 2014).

이상에서 언급한 어머니의 인구학적·경제적 특성 외, 최근 자녀가치와 양육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첫 자녀 이후의 출산은 부모의 개인적 가치와 양육경험에 따라 자발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Lim, et al., 2011). 우선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경제적 부담, 개인생활의 제한, 신체적 피로감 등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후속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et al., 2011).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고통으로,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감과 더불어 가사업무의 집중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가 유발되고, 결국 후속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 Kang,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Song, Lee와 Kim(2010) 연구에 의하면, 개월 수가 적은 영아를 양육할 경우 조부모나 산후도우미 등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어머니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적어지므로, 후속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o(2008)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는 오히려 급격한 발달을 보이는 영아기라는 점이 제시됨으로써 Song 등(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연구(Kim, Doh, Kim, & Rhee, 2010)도 있다. Kim 등(2010)에 의하면 취업모의 경우 소득 및 직종, 근무시간의 융통성, 직무만족도 등의 취업관련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또한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자녀가치관은 부모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심리적·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Kwon & Kim, 2004). 자녀가치관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더불어 출산계획 및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져 왔다.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서 기대되는 물질적 이익과 비용을 의미하며 심리적 가치는 자녀로부터 얻게 되는 행복과 즐거움과 자녀에 대한 기대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포괄한 개념이다. 사회적 가치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기대되는 사회적 승인 및 지원, 가계계승 등을 뜻한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녀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후속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Chung & Chin, 2008; Lee, 2009). 또한 몇몇 연구결과(Cha, 2008; Ma, 2007), 자녀가 제공하는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 후속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다.

2) 관계적 특성

앞서 언급된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남편 및 주변 사람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관계 만족도는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지지되어져 왔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에 대한 행복과 만족, 그리고 즐거움 등의 주관적 감정을 포괄한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핵가족 중심의 가족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양육에 있어 배우자의 정서적·도구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더불어 부부관계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덜어주어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의 부부관계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Suh & Kim, 2010), 자녀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Kang, 2007; Lim & Lee, 2013).

부부관계만족도와 후속출산계획 간의 관련성은 심리학적 관점과 성평등적 관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Myers(1997)에 의하면 배우자와의 결속감이 높고 일치감이 높을수록 자녀를 출

산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 즉, 부부간의 심리적 유대감과 정서적 교류가 활발할수록 자녀출산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수 있다. 성평등적 관점은 부부가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개인의 성평등 가치관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자녀출산행동에 있어 부부간의 가사분담 정도 및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한다(McDonald, 2000; Torr & Short, 2004). 이러한 점은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는데, Lim과 Lee(2013)의 연구결과 전반적인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은 경우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후속출산계획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Park(2008)과 Kang(2007)은 비취업여성 과 달리 취업여성에 한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후속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취업여성의 경우 부부관계의 질을 이루는 하위요인 중 성평등적 가치관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한편 어머니의 가정 밖 사회적 지원 또한 양육스트레스 및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어져 왔다. 사회적 지원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녀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도움을 준다(Respler-Herman, Mowder, Yasik, & Shamah, 2012). 즉, 주변인으로 받는 정서적·물질적·정보적 지원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게 된다(Moon, 2004). 따라서 사회적 지원은 후속출산 의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취업모의 경우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몇몇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Lee(2012)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으며, Lim 등(2011)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후속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한편 Ko와 Kim(2014) 또한 외부의 사회적 지원은 결혼만족도를 높여 결국 후속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Lim 등(2011)과 유사하게 후속출산계획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간접적 영향력을 입증하였다.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취업모의 경우 사회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취업모는 자녀가 어릴수록 혈연관계에 의한 대리양육을 선호하며, 자녀양육지원자가 혈연관계일수록 후속출산계획을 하고자 하는 경향

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Kim, 2007)도 있다. Park(2012)의 연구결과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은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Park(2008)의 연구에서도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 후속출산계획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2. 자녀의 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기존 자녀의 성별 및 출생순위 또한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특정 성별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존재하는 사회일수록 현존 자녀의 성별이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Pollard & Morgan, 2002).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아들의 존재는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쳤으나(Kim, 2007), 현재에는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Lee, 2009)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들(Jung et al., 2013)은 여전히 자녀의 성별은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Park(2008)에 의하면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의 성별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즉, 비취업모의 경우 2세 미만의 어린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자녀의 성별이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 반면 취업여성은 첫째 자녀의 성보다 월평균 소득,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등이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의 성별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제시되었다.

한편 자녀의 출생순위 또한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 Choi와 Jang(2010)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자녀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후속출산계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Jung 등(2013)은 이전에 출산한 자녀의 출생 순위가 첫째와 둘째이거나 여아일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대상은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에 참여한 어머니이었다(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5). 한국아동패널조사는 2008년 전국의료기관에 출생한 신생아(타겟 자녀)를 대상으로 성인기(2027년)까지 발달적 특성을 추적 조사하며, 타겟 자녀를 둘러싼 환경(부모·가족·학교·육아지원서비스·지역사회·육아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한국 아동패널 조사는 현재까지 5차년도 자료가 발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08년(1차년도)부터 2010년(3차년도)까지 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중 2008년 자녀를 출산한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후속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어머니 1,635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후속출산계획은 3차년도의 자료를, 독립변인인 이전에 출산한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은 2008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반면 그 외 독립변인인 월평균 가구 소득,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지원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자료의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후속출산 계획시기를 출산이후 2년이 된 후로 선택한 이유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첫째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 대체로 1~3년 사이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51.9%로 가장 많으며(Joung & Choi, 2013), 어머니의 초산 연령(35세미만, 35세이상)과 상관없이 계획하는 자녀터울이 평균 2.8년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Lee, Yoo, & Kim, 2013). 또한 어머니의 취업상태 등 일반적 배경에 관련된 자료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대상 중 취업을 한 경우(학업 중 포함)는 33.4%로, 과반수(66.5%)가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취업을 한 어머니의 경우 임금근로자(81.2%)가 비임금근로자(18.8%)보다 많았으며, 정규직 근로자가 6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14.5%), 비정규직 임시직(11.5%) 순이었다. 또한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ategories		Frequency (%)
Status of employment	Employed	547 (33.4)
	Unemployed	1,088 (66.5)
	Totals	1,635 (100.0)
Age	21~25 years old	36 (2.2)
	26~30 years old	385 (23.6)
	31~35 years old	842 (51.7)
	36~40 years old	325 (20.0)
	41~45 years old	32 (2.0)
	Older than 46 years old	8 (0.5)
	Totals	1,628 (100.0)
Final education	Middle school	10 (0.7)
	High school	447 (29.4)
	College	385 (25.3)
	University	601 (39.5)
	Master course in graduate school	72 (4.7)
	Ph. D course in graduate school	6 (0.4)
	Totals	1,521 (100.0)
Family structure	Parents, children	1,440 (88.1)
	Grand-parents, parents, children	142 (8.7)
	Parents, children, relatives	15 (0.9)
	Grand-parents, parents, children, relatives	28 (1.7)
	Others	10 (0.6)
	Totals	1,635 (100.0)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2.8세(SD=3.675)로 31~35세가 5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6~30세(23.6%), 36~40세(20.0%) 순이었다. 한편 본 연구대상 최종학력은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64.8%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가 대부분(88.1%)이었다.

2. 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인: 후속출산계획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은 2010년을 기준으로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경우(임신 중 포함)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측정되었다.

2) 독립변인

(1) 월평균 가구소득

본 연구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은 연구대상이 직접 기입한 형태로 측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입된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2)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2008년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것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측정된 양육스트레스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 (1983, 1990, 1995)의 양육스트레스척도(Parenting Stress Index: PSI)와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를 토대로 Kim과 Kang(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

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경우 1, 2차년도의 경우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3차년도의 경우 자녀의 연령(만 2세)에 경험할 수 있는 문항 1개(‘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다’)를 포함한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스트레스의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어 가능한 점수범위는 1, 2차년도의 경우 10~50점, 3차년도의 경우 11~55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1~3차년도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3차년도 양육스트레스척도의 평균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5로 나타났다.

(3) 자녀가치

자녀가치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도구적·정서적 동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0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녀가치 척도는 총 7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가능한 점수범위는 7~35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측정된 척도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자녀가치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주는 정서적 기쁨 및 도구적 도움, 가계계승 의미에 가치를 두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1~3차년도 자녀가치 척도의 평균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74로 나타났다.

(4)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측정된 결혼만족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chumm, Nicols, Schectman와 Grigsby(1983)가 개발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를 Chung(2004)이 우리나라에 문화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척도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가능한 점수범위는 4~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음을 의미하며, 1~3차년도 결혼만족도 척도의 평균 내적합치

도 계수 Cronbach α 는 .91로 나타났다.

(5) 사회적 지원

사회적지원은 가족, 친구 및 이웃 등 대인관계를 통해 어머니가 인식하는 정서적·도구적·사회적 지원으로, 본 연구에서는 Lee와 Ok(2001)의 사회적 지원척도와 Cho, Suh, Shin과 Chung(1998)의 사회적 지원척도를 기초로 한국아동패널조사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원 척도는 총 12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가능한 점수범위는 12~60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측정된 척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원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1~3차년도 사회적 지원 척도의 평균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6) 이전에 출산한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

본 연구의 독립변인 중 이전에 출산한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은 어머니가 2008년 출산한 자녀에 해당되는 것으로, 출생순위의 경우 첫째와 둘째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배경과 측정변인의 기술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인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 여부에 따라 독립변인(월 평균 가구소득,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이전에 출산한 자녀의 출생순위, 성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정 및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인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을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알고리즘 중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를 적용하였으며, 독립변인들의 분리

Table 2.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mothers' variables

Variables	N	M (SD)
Average family income per month(log)	1,624	14.98 (.526)
Child-rearing stress	1,579	2.76 (.543)
Child value	1,634	3.54 (.497)
Marital Satisfaction	1,628	3.85 (.643)
Social support	1,579	3.95 (.490)

(splitting)와 병합(merging)의 기준은 .05로, 정지규칙은 최대 나무깊이를 5수준으로, 부모마디(parent node) 및 자식마디(child node)의 분리기준은 50, 100으로 지정하였다. CHAID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범주형, 연속형인 경우 모두 적용가능하며, 종속변인이 범주형일 경우 χ^2 검증을 수행하며 2개 이상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한다. 특히 CHAID는 다지 분리(multiway split)를 수행하며 분리 시, 한번 사용한 독립변인을 재사용하지 않고 예측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Jung, 2014). 한편 연구문제 1, 2 분석 시, 월평균 가구소득은 분포상 비선형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로그(logarithm)로 변환된 변수를 사용하였다(Kim, 2007).

표준편차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본 연구대상 어머니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log값)은 14.98(SD=0.526)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평균이 2.76(SD=0.543)으로, 가능한 점수범위(1~5점)를 고려해 볼 때,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는 중간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녀가치의 경우 각각 3.85(SD=0.643), 3.54(SD=0.497)로 가능한 점수범위(1~5점)를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자녀가치 수준은 중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원은 3.95(SD=0.4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독립변인 중 이전에 출산한 자녀의 출생 순위 및 성별을 살펴본 결과(<Table 3> 참조), 첫째(45.4%)보다 둘째이상(54.5%)이 다소 많았으며, 남녀의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IV. 결과 및 고찰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경우는 557명 (34.1%)으로,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1,078명(65.9%))가 더 많았다. 또한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월평균 가구소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자녀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의 평균 및

2. 후속출산계획여부에 따른 독립변인의 비교

연구문제 1인 후속출산계획 여부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선정된 독립변인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은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 반면 월평균

Table 3.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children' s variables born in 2008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Children's birth order born in 2008	First	743 (45.4)
	Second or lower	892 (54.5)
	Totals	1,635 (100.0)
Children's sex born in 2008	Male	825 (50.5)
	Female	810 (49.5)
	Totals	1,635 (100.0)

Table 4. Mothers' variables and subsequent childbirth plan

Independent variables	Subsequent childbirth plan				t
	Yes		No		
	n	M (SD)	n	M (SD)	
Average family income per month (log)	554	14.96 (.50)	1,070	14.99 (.53)	-0.911
Child-rearing stress	557	2.67 (.56)	1,079	2.80 (.52)	-4.588***
Child value	553	3.54 (.57)	1,075	3.47 (.58)	2.307*
Marital Satisfaction	557	3.97 (.62)	1,076	3.77 (.64)	6.168***
Social support	504	4.01 (.50)	952	3.93 (.49)	2.739**

* $p < .05$, ** $p < .01$, *** $p < .001$

가구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후속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경우,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았으며($t = -4.588$, $p < .001$), 자녀가치($t = 2.307$, $p < .05$) 및 결혼만족도($t = 6.168$, $p < .001$), 사회적지원 정도($t = 2.739$, $p < .01$)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Table 4> 참조).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가치 및 사회적지원에 비해 다소 큰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후속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후속출산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들(Lee, 2009; Lee, 2012; Lim & Lee, 2013; Lim et al., 2011)의 결과와 일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후속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보고됨으로써 Lim 등(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가치 및 사회적지원에 비해 다소 큰 것으로 제시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스트레스

가 사회적 지원에 비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한 Kim, Yang과 Sung(2013)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만족도 척도에는 결혼생활 및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배우자로서의 남편 역할과 더불어 아버지로서의 남편역할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Kim 등(2013)의 연구결과가 일관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이전에 출산한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8년 출생한 자녀가 첫째이거나($\chi^2 = 463.917$, $p < .001$), 여아일 경우($\chi^2 = 4.661$, $p < .05$) 후속출산계획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이러한 결과 또한 Choi와 Jang(201), Jung 등(2013)의 연구결과와 일관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자녀의 성별과 출생순위는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Table 5. Children's variables born in 2008 and subsequent childbirth plan

Independent variables	Subsequent childbirth plan		χ^2	
	Yes (%)	No (%)		
Children's birth order born in 2008	First child	450 (83.3)	275 (26.4)	463.917***
	Second child or lower	90 (16.7)	766 (73.6)	
	Totals	540 (100.0)	1,041 (100.0)	
Children's sex born in 2008	Male	259 (47.9)	560 (53.6)	4.661*
	Female	282 (52.1)	485 (46.4)	
	Totals	541 (100.0)	1,045 (100.0)	

* $p < .05$, *** $p < .001$

3.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예측요인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 비취업모와 취업모로 나누어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취업모

비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는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초기에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33.4%(0번 노드)로 나타난 반면 이전에 출산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60.2%(1번 노드)로 증가하였으며 그 자녀가 여아일 경우 65.8%(3번 노드)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후속출산계획이 가장 많은 경우는 이전에 출산한 자녀가 첫째이고 동시에 여아일 때였다. 그러나 이전에 출산한 자

녀가 첫째이고 남자일 경우(4번 노드)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경우가 55.6%로, 출산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60.2%(1번 노드)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경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도구적·정서적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을 경우(평균 3.714보다 높은 경우),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경우가 71.8%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 자녀의 가치가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한 비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정확도는 관찰치와 실제상황에 대한 예측치가 일치할 확률으로, 예측치를 관찰치로 나누어 산출된다(Jung, 2014). 따라서 전체 관찰치 중 후속출산계획 분류 예측치의 정확도(전체 관찰치 중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정확히 예측한 비율)는 75.6%이며,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의 경우 정확도(후속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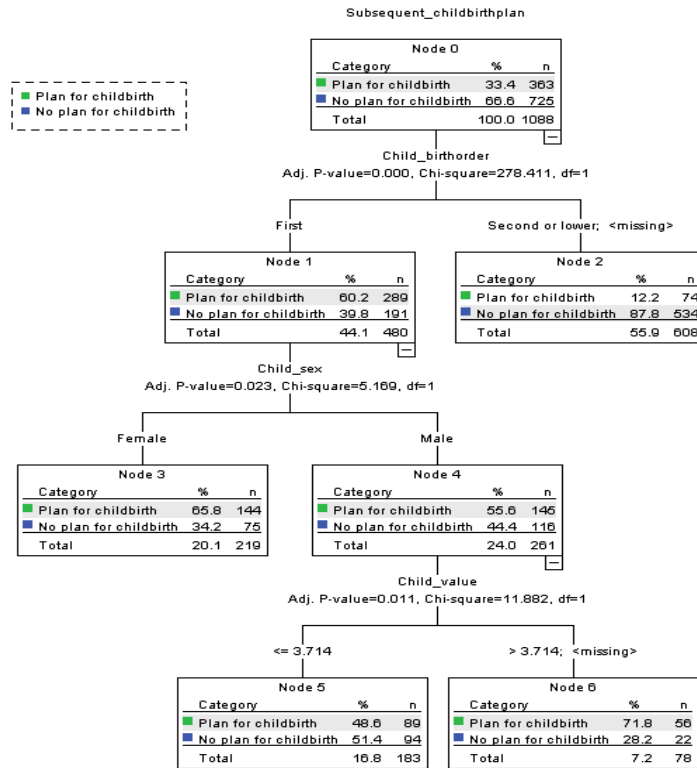


Figure 1. Non-employed mothers' predictors of subsequent childbirth plan¹⁾

1) missing은 결측치를 의미하며, CHAID 알고리즘에서 결측치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모형의 정확도가 높아짐(Jung, 2014).

Table 6. Accuracy rates of decision tree analysis for non-employed mothers

Category	Observation	Expect		Accuracy rate (%)
		Yes	No	
Subsequent childbirth plan	Yes	363	289	79.6
	No	725	191	73.7
Totals		1,088		75.6

계획이 있다고 관찰된 집단 중 후속출산계획이 있다고 예측될 비율)는 79.6%, 후속출산계획이 없는 집단의 경우 정확도(후속출산계획이 없다고 관찰된 집단 중 후속출산계획이 없다고 예측될 비율)는 73.7%로 나타남으로써 비취업모의 의사결정나무 분석 모형은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이 후속출산계획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자녀가 첫째이면서 여아일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자녀의 출생순위가 첫째이거나 둘째이면서 여아일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Jung 등(201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몇몇 선행연구(Chung & Chin, 2008; Lee, 2009)를 통해 자녀가치는 자녀

의 성별 등 다른 요인과 더불어 독립적으로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된 반면,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자녀가 남자일 경우 후속자녀를 계획하는데 있어 자녀가 주는 도구적·정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여러 변인들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2) 취업모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는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초기에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35.5%(0번 노드)로 나타난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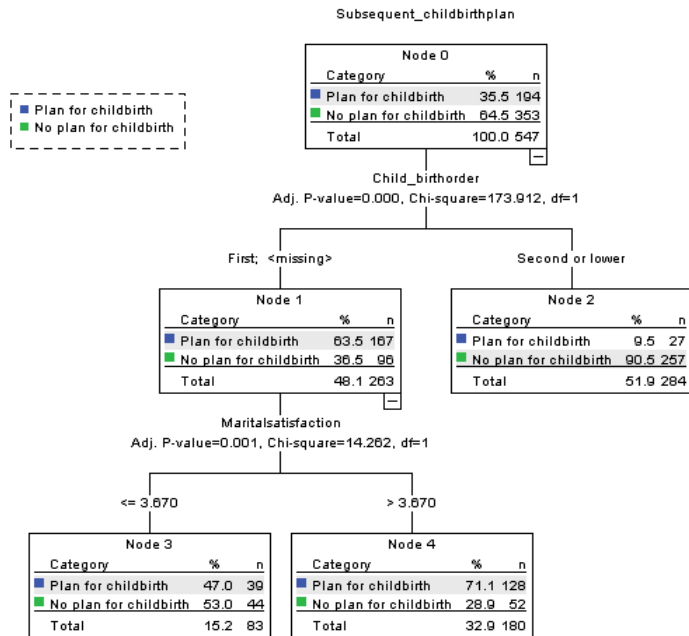


Figure 2. Employed mothers' predictors of subsequent childbirth plan

Table 7. Accuracy rates of decision tree analysis for employed mothers

Category	Observation	Expect		Accuracy rate (%)
		Yes	No	
Subsequent childbirth plan	Yes	194	167	86.1
	No	353	96	72.8
Totals	547			77.5

면 이전에 출산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63.5%(1번 노드)로 증가하였으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경우(평균 3.670보다 높은 경우),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경우가 71.1%로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순위와 결혼만족도가 후속출산계획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이용한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 의하면 전체 관찰치 중 후속출산계획 분류의 예측치의 정확도(일치도)는 77.5%(전체 관찰치 중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정확히 예측한 비율)이며,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의 정확도(후속출산계획이 있다고 관찰된 집단 중 후속출산계획이 있다고 예측될 비율)는 86.1%, 후속출산계획이 없는 집단의 정확도(후속출산계획이 없다고 관찰된 집단 중 후속출산계획이 없다고 예측될 비율)는 72.8%로 나타남으로써 취업모의 의사결정나무분석 모형은 정확도 또한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와 달리 자녀의 출생순위와 결혼만족도가 후속출산계획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경우 사회적 지원, 기존 자녀수와 더불어 부부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Ko와 Kim(2014)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취업여성의 경우 월평균 소득과 총 가구원 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후속출산계획을 예측하는 주요변수로 제시된 Park(2008)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관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취업모의 경우 첫 자녀의 성별은 후속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Choi(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취업모의 경우 첫째 자녀를 출산 후,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우자 및 아버지 역할에 있어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둘째아

출산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어동태널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 특성(월평균 가구소득, 양육스트레스, 자녀 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및 기존 자녀 특성(성별, 출생순위)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을 예측하는 요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은 후속출산계획여부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친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경제적 속성 보다 심리적·관계적 속성, 자녀 특성이 후속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으로 기존의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중심의 정책방향을 고수하기 보다 어머니의 심리적·관계적 측면을 고려하고, 남녀평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복합적인 예측력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첫째이면서 여아일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첫째이면서 남아일 경우 자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후속출산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순위와 결혼만족도가 후속출산계획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기존의 자녀가

첫째이면서 결혼만족도가 높을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계획은 공통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으나,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여아일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취업모 집단에 비해 남아선호사상이 후속출산계획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취업모의 경우 둘째출산계획을 결정짓는데 있어 남편과의 관계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으며, 아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함에 따라(Kim & Kim, 1998), 후속출산계획에 자녀의 성별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첫째 자녀가 남아일 경우 자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후속출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평등적 성역할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가정일과 직장일을 병행하여야 되는 이중 부담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밀접한 심리적·도구적 지원원인 남편과의 관계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둘째출산계획에 있어 남아선호사상 및 결혼만족도, 자녀가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됨에 따라, 후속출산을 제고에 있어 평등한 성역할 태도, 자녀가치, 남녀평등가치가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시사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은 장기간을 통해 형성되므로,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인 인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구교육은 국가의 적절한 인구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가족에 대한 이해, 임신과 출산, 성역할, 부모됨의 이해, 가족가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Kim & Seo, 2012; Lee, 2006). 그러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입시위주의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별도의 교과목 개설이 아닌 기술·가정, 사회과, 도덕과 등의 교과목 안에서 인구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가정교과는 다른 어떤 교과보다 인구교육의 내용전반을 잘 포함하며 교과의 목표도 인구교육의 목표를 포괄하므로, 가정교과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Wang & Lim, 2014).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탐색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후속출산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 변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아버지 관련 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가정의 의사결정에 있어 아버지의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자녀가치 등의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후속출산계획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변인(예: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의 경우 3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후속출산계획 및 관련된 변인의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후속출산계획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후속출산계획을 추적함과 동시에 이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탐색한 종단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rewster, K.L., & Rindfuss, R.R. (2000). Fertility and woma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71-296.
- Cha, S.E. (2008). Cost - reward of parent role and decision to have a second child: Focused on socioeconomic differences. *Social Welfare Policy*, 33(6), 111-134.
- Cho, B.E., Suh, D.I., Shin, H.Y., & Chung, H.S. (1998). The impact of coping resources on positive changes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1), 13-21.
- Choi, H.J. (2012). *A study of causal model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social, economic activity variables and the subsequent birth plan of the working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 Choi, Y.K., & Jang, Y.E. (2010). *Factors affecting on the formation of continuing fertility and infertility in Korean*

- mothers. Paper presented at the 1st conference on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Chung, H.E., & Chin, M.J. (2008).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a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1), 147-164.
- Chung, H.S.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Joung, E.H., & Choi, Y.S. (2013).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1), 5-34.
- Jung, S.W. (2014). *Discriminant analysis using SPSS decision tree*. The 74th SPSS seminars. Seoul: Data Solution.
- Jung, Y.H., Kim, H.J., & Jung, S.H. (201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family planning decision of mothers who have 2 years old children: Focusing on parents' values on children and characteristics of coupl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0(2), 185-203.
- Kang, Y.J. (2007). Family-related factors affecting the second birth decision: Focus on the value of children and family relationship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8(4), 639-653.
- Ko, K.M., & Kim, S.A. (2014).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work-family enrichment policy, and marital relationship upon child-birth intention and expected number of children.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18(4), 35-51.
- Kramer, M.S. (1987). Determinants of low birth weight: methodological assessment and meta-analysis.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65(5), 663-737.
- Kim, C.S. (2007). Parity specific approach to the plan of having an additional child.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0(2), 97-116.
- Kim, H.G., & Seo, J.Y. (2012). Factors impacting on the marital and childbearing willing among college students. *민족문화논총*, 52, 175-206.
- Kim, H.W., & Kim, M.S. (1998). Psychological effect of employment on married women in relation to the women's gender-role and son-preference attitude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3(1), 35-50.
- Kim, J.B., & Yoo, E.Y. (2010). *The development of model for the second-birth intention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an*. Paper presented at the 1st conference on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Kim, J.H., Yang, S.Y., & Sung, J.H. (2013). The effects of parent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on planning for a second childbirth,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1), 87-102.
- Kim, K.H. (2007). *A longitudinal analysis of adolescents' private education and its effect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 Kim, K.H., & Kang, H.K.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5), 141-150.
- Kim, K.W., Doh, H.S., Kim, S.W., & Rhee, S.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loyment job characteristics,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5), 101-113.
- Kim, M.W., & Kang, M.J. (2011). The effect of double-income couples' gender role attitudes and recognition of social support in parent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8), 23-35.
- Kong, S.Y. (2006).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Fertility of Married Women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Health and Social Science*, 19, 119-149.
- Kweon, Y.R., & Kim, S.Y. (2014). Predictors of protective factors for internet fame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data mining decision tree analysis. *The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3(1), 12-20.
- Kwon, Y.E., & Kim, E.C. (2004). Value of children and fertility.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13(1),

- 211-226.
- Lee, C.S., Jung, M.N., & Kim, Y.J. (2012).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for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application of decision tree analysis. *Studies on Korean Youth, 23*(1), 31-55.
- Lee, H.M. (2012).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dditional birth plan: Focused on Korean households with infant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0*(1), 1-31.
- Lee, J.R., & Ok, S.W. (2001). Family life events, social support, support from childre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low-income female earne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5), 49-63.
- Lee, J.S., & Choi, W.S. (2012). A path analysis on birth plan of married working women: Focus on the relationships of gender role attitude, work-family reconciliation, marriage satisfaction and birth pl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4), 5-30.
- Lee, J.W. (2009). Pathway analysis on determination of intertion of second childbirth in working women with a child: Focused on value fac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9*(1), 323-351.
- Lee, J.W., & Min, J.W. (2015). An effect of mater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HOME) on follow-up planned childbirth.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14*(1), 79-100.
- Lee, J.W., Yoo, H.M., & Kim, M.J. (2013). *A study on the measures to support childbirth and rearing for families with late childbirths*. Research Report 2013-31.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Lee, S.S. (2006). Causes of low fertility and future policy option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11*, 5-17.
- Lee, S.S., & Choi, H.J. (2014). Impact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fertili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4), 153-184.
- Lee, S.S., Jung, Y.S., Kim, H.K., Choi, E.Y., Park, S.K., Cho, N.H., Shin, I. C., Do, S.R., Cho, S.K., & Kang, J.H. (2005). *National survey of marriage and childbirth in 2005* (Report No. 2005-30 (1)).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ibenstein, H. (1975).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declin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 1-31.
- Lim, H.J. (2013). The impact of par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planning to have a second child: A cross-analysis of socio-demographic, economic and parental variabl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3), 35-58.
- Lim, H.J., & Lee, D.K. (2013). A study of personal and social variables affecting planning for a second child in South Korea using statistics from the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9 repor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2), 121-144.
- Lim, H.J., Lee, D.K., & Choi, H.J. (2011). An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of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on planning for seco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6), 167-189.
- Lim, H.J., Park, H.Y., Jahng, K.E., & Lee, J.E. (2015).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variables, parenting stress, and intention for the second childbirth.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 297-318.
- Ma, M.J. (2007).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ntion and the avoidance of second childbirth of working coup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 Moon, H.J. (2004).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1), 109-122.
- Myers, S.M. (1997). Marital uncertainty and childbearing. *Social*

- Forces*, 75(4), 1271-1289.
- No, A.M. (2008). *The influences of parenting stress and self-differentiation on parental role satisfaction in mothers with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5).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Data file and code book]. Retrieved from <http://panel.kicce.re.kr/kor/>
- Park, C.H. (2012). The effects of child care support, value of childr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second childbirth plans for employed mothers with ai infant of 10 months or younge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1), 95-111.
- Park, S.H., & Kim, S.H. (2008). *The cause of low birth of employed women and woman friendly labor market policies*. Seoul: New Paradigm Center.
- Park, S.M.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gender equity with family and second birth.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1), 59-77.
- Pollard, M.S., & Morgan, P. (2002). Emerging parental gender indifference: Sex composition of children and the third bir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4), 600-613.
- Respler-Herman, M., Mowder, B.A., Yasik, A.E., & Shamah, R. (2012). Parenting beliefs,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 190-198.
- Shin, N.R. (2013). Exploring pathways from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o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3), 405-420.
- Song, Y.J., Lee, J.O., & Kim, C.K. (2010). *Exploration of Psychosocial Factors related to have an additional child among Working Mothers: Focusing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role perception in family of working mothers*. Paper presented at the 1st conference on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Statistics Korea (2014). e - national indicators.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 Suh, J.H., & Kim, J.K. (2010).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fancy Maternal Parenting Stress.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3, 101-121.
- Torr, B.M., & Short, S.E. (2004). Second birth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 Wang, S.S., & Lim, Y.M. (2014). The effects of population education on the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4), 1-18.
- Wang, Y.H., & Lee, Y.J. (2012). *Second child-birth plan and implementation*. Research (Report 2012-34). Seoul: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국문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개인적·관계적 속성과 현 자녀속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을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1,635명이었으며,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월평균 가구소득,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기존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t 검정 및 χ^2 검정,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은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 자녀가치가 후속출산계획을 예측하는 주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 현 자녀가 첫째이면서 여아일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첫째이면서 남아일 경우 자녀에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후속출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순위와 결혼만족도가 후속출산계획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현 자녀가 첫째이면서 결혼만족도가 높을 경우 후속출산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후속출산을 제고방안으로, 인구교육의 필요성과 가정교과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5년 12월 02일, 논문심사일자: 2015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2월 24일